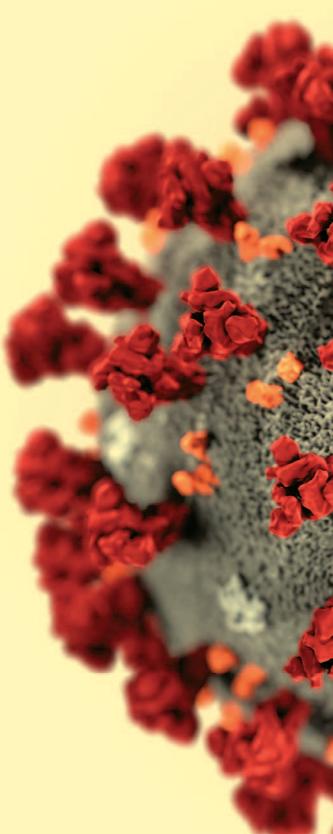


# 軍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국민을 위한 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면전에 들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상회의에서 “전시에 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범정부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자 전군의 모든 부대와 병력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선에 일제히 뛰어들었다. 3월 29일 현재, 군 지원인력은 의료 분야는 물론 마스크 제작·수송, 방역·소독,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군의 3월 한 달간 활동을 집중 조명했다.

## ‘사회적 거리 두기’…軍 장병 적극 동참

국방부, 캠페인 기간 부대관리 지침 시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월 2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비군사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경원기자

국방부는 3월 23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정부가 내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월 21일 캠페인 시작에 맞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축소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기간 부대관리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장병들의 휴가, 외출·외박, 면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통제된다. 다만 다음 달 전역으로 인해 휴가를 가야만 하는 3년 차 군의관들의 경우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특정 날짜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선에서 각 군에 휴가 시행을 위임했다. 국방부는 휴가를 나가는 군의관들에게는 출발 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 교육을 하도록 하고 복귀한 뒤에는 ‘예방적 관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장병들의 근무도 역시 지금처럼 유지된다. 국방부는 장성급 지휘관이 정상일과, 영내대기, 집약근무형 유연근무제, 비상근무체계(참모총장 승인 아래 시행) 중 선택하도록 했다.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꼭 출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취한 뒤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근무하게 했다.

현재 군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적 격리 대상은 확대됐다. 그동안은 정부의 특별검역관리 대상 11개 나라를 다녀온 경우에만 예방적 격리를 실시했지만 이제는 모든 해외여행자가 대상이 됐다. 함께 사는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경우에도 예방적 관찰을 실시한다. 위험지역의 범위도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 봉화 등이 추가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넓어졌다.

방문·출장도 ‘최소화’에서 ‘원칙적 금지’로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실장급, 장성급 부대장, 국직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장병들을 위한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활동은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현장지도나 군사경찰·감찰 활동도 시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회의는 최근 계속 진행되는 화상회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대면 회의는 참석자 사이의 거리를 2m 이상 두도록 했고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 역시 대면보고 대신 비대면, 이메일, 전화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4월 5일까지 이어지는 캠페인 기간에는 부대 회식,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이 금지됐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행사는 중단했지만, 영상 등을 활용해 종교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 밖에도 3월 23일부터 캠페인 종료 시점까지 군 골프장, 골프연습장 운영도 중단했다. 계속된 영내 생활로 인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국방부는 부대들에 동적인 활동과 탄력적인 부대 운영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산물 구매 캠페인’도 적극 장려했다. [증]

맹수열 기자

## 코로나19 극복 軍 지원 연인원 7만 육박

軍, “도움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갈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 투입된 우리 군의 지원 인력이 7만 명(연인원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군 지원인력은 의료 분야는 물론 마스크 제작·수송, 방역·소독,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현시점에 전시에 준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뒤 총력을 다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3월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 나선 군 지원인력은 연인원 6만9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1만2700여 명이고, 기타 지원인력은 5만6300여 명이다.

군 지원인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에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달 의료진의 격리로 의료 공백이 생긴 광주21세기병원에서 인술(仁術)을 펼친 군 의료진을 비롯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을 위해 긴급 투입된 국군의료지원단의 활약은 국민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3월 3일 임관과 동시에 대구로 향한 60기 국군간호사관 신임 장교들의 헌신도 빛났다.

우리 군은 의료지원을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코로나 포비아(코로나19 공포증)’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멈춰선 사회 전반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헌신이 눈에 띄었다.

먼저 국방부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제작과 포장을 지원해왔다. 마스크 제작에는 연인원 1900여 명, 포장에는 6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전국 270여 개 민간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를 돋는 데도 3000여 명이 구슬땀을 흘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춰선 수송 분야도 군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민간에서 운송을 꺼리는 방역물자 운송 지원을 위해 우리 군은 지금까지 총 153대의 차량과 321명의 운송 인력을 투입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으로 향하는 군 수송인력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무에 임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핵심인 방역·소독에서도 우리 군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군이 방역·소독에 투입한 인원은 연인원 1만1157명에 달한다. 제독차 등 장비도 총 5461대가 동원됐다. 이 밖에도 복지지원 총 400여 명, 공항·항만 검역 총 300여 명, 진료·검체·감시 총 200여 명 등 코로나19 극복 현장 곳곳에서 장병들이 활약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의 지원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방부는 3월 18일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 지원 요청에 따라 통역 등 53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군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방침이다. ▣

맹수열 기자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장병들이 3월 17일 서울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승강장에서 소독제를 살포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 공군수송기 방역물자 운송 위해 긴급 투입

국방부 해외 방역물자 운송 임무 첫 수행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이 3월 18일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서 C-130J 수송기에 방역물을 적재하고 있다. 군 수송기가 해외 물자 운송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송기는 수술용 가운 8만 벌을 싣고 3월 19일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공군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가 사상 처음으로 방역물자 긴급 수송에 나섰다. 국방부는 3월 18일 “방역물자 해외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C-130J 수송기 2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군 수송기가 해외물자 운송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로부터 들여오는 물자는 수술용 가운 8만 벌이다. 군 수송기를 통해 들어온 수술용 가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 의료시설에 전해질 예정이다. 현재 수술용 가운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미얀마에서 수술용 가운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3월 9일 갑자기 국적사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자를 들여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박해진 국내 사정을 고려, 하루라도 서둘러 방역물을 들여오기 위해 과감히 군 수송기를 보내는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운송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먼저 미얀마가 대구·경북에서 오는 승객·승무원들의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경남 지역에서 오는 인원에게도 14일간 격리조치를 하겠

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김해지역에서 출발하는 수송기 승무원들도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됐다. 결국 국방부는 미얀마 정부와 협의 끝에 ‘김해에서 출발하는 수송기 승무원 전원이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지 비행장 내에서만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수송기를 통한 비군용 방역물자 수송은 군이 급박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만든 최초의 사례”라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국방부와 외교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날 아침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공군 수송기는 21여 시간 뒤인 3월 19일 새벽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미얀마에서 운송된 방역물자들은 업체 물류창고로 수송됐다.

임무 통제를 맡은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이덕희(대령·진) 항공작전대장은 “2박 3일 걸리는 거리를 무박 2일로 오가는 강행군이지만,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드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공군도 한몫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져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맹수열 기자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대비 선제 대응해야”

정경두 장관 의무사 현장 방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를 현장 지도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의무사령부에 도착한 정 장관은 부대 방역대책본부에서 군(軍) 병원장과 국군의학연구소장 등 의무사 예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코로나19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군 의료인력과 병원 등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휴식·식사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불비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군 의료인력의 희생·현신에 감사를 표했다.

정 장관은 “법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군의 지원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안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 국민을 위한 군의 모습”이라며 “군 의료·지원 인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우리 군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면서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를 강조했다.

먼저 정 장관은 군의관·간호장교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군 의료 인력에 보호장구·마스크 등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외의 일반적인 의료지원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가용한 의료 인원과 시설을 이용해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여건이 제한될 때는 민간 의료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장병 건강 유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 인사이동 등으로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해 코로나19 대응과 일반 장

병에 대한 의료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국군의무사령관과 군 병원장들은 코로나19라는 비군사적 안보위협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현장지휘관”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지원과 장병 전투력 보존을 위한 군 내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한 정 장관은 선별진료소와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둘러본 뒤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후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한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추진 중인 ‘군 의료지원체계 혁신’의 정상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국군외상센터가 후반기에 사전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원하면 각종 사고로 부상당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전문]

윤병노 기자



정경두(맨 앞) 국방부 장관이 3월 16일 국군의무사령부 방역대책본부에서 의무사 예하 주요 직위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 한미 장병 대구에서 연합 방역작전

육군2작전사령부·미19지원사령부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와 미19지원사령부(미19지원사)는 3월 13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가 됐다가 해제된 대구광역시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 방역작전을 펼쳤다. 이번 방역작전은 대구에 위치해 미8군의 군수지원 및 한반도 내 전투력 유지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19지원사가 3월 5일 대구·경북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작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2작전사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2작전사 화생방대대 30여 명과 미19지원사 주한물자단 20여 명은 개인별 방호복과 방역기를 착용한 상태로 한마음아파트 진입로와 주차장 등 주변 곳곳을 방역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힘을 모았다.

미19지원사는 이번 방역작전을 위해 3월 10일 미군기지 내에서 2작전사 화생방대대 간부를 지원받아 방역기 사용요령과 방역절차, 방역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교육 받는 등 효과적인 방역작전을 펼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도 했다.

이날 한미 연합 방역작전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포괄적 위협 상황에서도 한미 장병들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질적인 연합작전능력을 배양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2작전사와 미19지원사는 추가적인 한미 연합 방역작전의 시행 여부를 차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2작전사 관계자는 “현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에서도 도움을 줘 힘이 됐다”며 “앞으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미19지원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

임채무 기자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및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들이 3월 13일 대구시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 연합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방역은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미19지원사의 의지가 2작전사에 전달되며 이뤄졌다. 양동욱 기자

## 국방부, ‘국방신속지원단’ 긴급 편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력·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국방부가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3월 12일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원 소요를 종합하고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신속지원단을 중심으로 방역, 수

송, 물자, 인력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적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신속지원단은 방역, 수송, 물자, 시설, 복지지원 등 5개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맡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구·경북, 서울·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지역 책임부대를 지정해 지원 접근성도 높였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식약청,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전담부대 지원과 지역책임부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조범위를 초과하는 사안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최전선 장병들이 진정한 영웅”

정경두 장관, 방역 현장 방문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3월 6일 대구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방역활동 중인 육군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정 장관은 3월 6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대구 지역을 직접 방문, 방역 현장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구 지역 방역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대구공항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방역과 소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만나 이들의 임무 수행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정 장관은 장병들에게 “대구·경북 지역은 비군사적 위협인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한 최전선”이라고 강조한 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지금 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독려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의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쉴 새 없이 임무를 수행 중인 검역·의료·행정 업무지원 인력과 방역·소독 요원들의 노고를 일일이 치하했다. 현장에 함께한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건강과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구 지역 부대도 방문했다.

정 장관은 방역 현장을 확인한 뒤 바로 공군 대구기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투기 조종사 비상 대기실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공군의 즉각대응태세 등을 점검한 그는 “우리 군은 비군사적 위협상황 속에서도 군사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7일에는 경기도 안양에 자리한 마스크 생산기업을 방문해 생산과 포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장관은 장병들에게 “국민의 부름이 있는 곳이면 언제라도 달려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라며 “휴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적으로 마스크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지휘관들에게는 “현행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최대한의 병력과 지원을 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 장관은 전국 13곳의 제작업체·관련 기관에서 마스크 생산을 지원하고 있는 장병 300여 명을 위해 간식으로 햄버거 세트를 제공했다. ▣

맹수열 기자

# 국군대구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시작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



3월 17일 국군대구병원 감염관리장교 강혜진(오른쪽) 대위가 간호스테이션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완치환자의 퇴원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3월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60기생도 졸업 및 임관식 직후 신임 간호장교들이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 대구행 버스에 오르고 있다. 양동욱 기자

국군대구병원이 3월 5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개원해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에 돌입했다.

이현민(육군 대령) 국군대구병원 군 의료지원단장은 “전국 각지에서 의료지원 중인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 예하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은 전시에 임한다는 자세로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군대구병원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군대구병원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병동 전체를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 전문병동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국방부와 군은 조기 전환을 위해 가능 가능한 모든 전력을 투입했다. 육군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을 포함한 장병 525명과 대구시청 파견 인력, 민간시설팀 등 800여 명의 민·관·군은 휴일도 반납한 채 총력전을 펼쳐 3월 3일 98

개 병상을 303개로 확대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음압장비 121개를 설치해 전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음압병상은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격리병상이다. 병실 내부의 병균과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의료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의무사는 전국의 군 병원에서 군의관·간호장교 130여 명을 국군대구병원으로 지원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을 추가 파견했다. 3월 3일 임관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도 5일부터 입원환자를 돌보는 임무에 투입됐다.

의료진은 레벨(Level) D 보호구 착·탈의 집중훈련, 감염병 예방 교육·실습을 진행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준비를 마쳤다. 국군대구병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외래 진료 기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구지역 확진환자 지원에 전념할 계획이다. ▣

윤병노 기자